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일체를 다 놓는다면 그대로 滅·道"

옛날에 어느 선지식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통이 돼봐야 쓰레기의 이치를 아느니라. 금은보화 담은 창고가 되지 말고 쓰레기통이 되거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가 곰곰히 생각을 해봤더니 쓰레기통에는 별의별게 다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고귀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그냥 팽개쳐져 있죠. 쓰레기통 노릇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를 때에도 쓰레기통의 이치와 같아서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쓰레기같은 거는 자기가 갖고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은 부처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노랫말에도 있지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쓴 것은 어머니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자식에게 주죠. 커서도 그저 고생없이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조그마한 소망, 소망이야 크고 작은 게 있을망정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생의 자부로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화해서 낳는 그 사생들을 전부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아픔 아님이 없고 자기 한 도량에 있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아니됨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부모가 한 가정에서 자식들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이 사생자부로서 일체 만물만생을 생각하는 바가 모습에 있어서 크고 작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물물과 바닷물이 물은 같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자기 주인공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은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것은 '언짢지 않게 하는 것도 너니까 잘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굴리면서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신통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또 내가 어디서 나온 줄 아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모두를 볼 때 잘 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되는 것이 있어도 구정물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맑은 물도 거기서 대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놓으라는 얘기죠.

탐진치 삼독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사성제가 있는데 그 '苦集滅道'도 근본적으로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고가 생기는 것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니 스스로서 원인을 알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자리에 놓는다면 멸이 됩니다. 일체를 다 놓는다면 일체가 다 멸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실천을 해가다 보면 도에 이르게 됩니다. 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활속에서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것을 믿고 놓을 때에 바로 멸함이 생기며, 멸에 들어가면 도가 있고, 도심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넓게 볼 줄 알게 되고 넓게 들을 줄 알게 되고 넓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둥글게 나오게 되겠죠.

> "말을 해도 한생각 잘못하게 되면
> 한데 떨어지니 진실되게 합시다
> 함부로 말하면 구업이 됩니다"

둥글게 나오는 반면 둘이 아닌 까닭을 알게 되며, 그것을 잘 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물물이나 바닷물 이나 똥물이나 핏물이나 흙탕물이나 다 똑같이 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 저것 무슨 물인지 따지지 않고 젖는 이치를요. 어디든지, 어떠한 물에도 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젖는 그 자체는 이 말을 안하면 그 이치를 모르겠기에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젖는 이치만 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의 그 뿌리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하나에 젖을 뿐이지 이것 저것 가리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가리는 게 없는 반면에 젖는 걸 알고, 젖는 걸 아는 반면에 그 젖는 것 마저도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최상승의 얘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해나가는 게 뭡니까. 이익이 없다면 할 것도 없죠. 할 것도 없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이익이 충분하고 나와 남이 다 이익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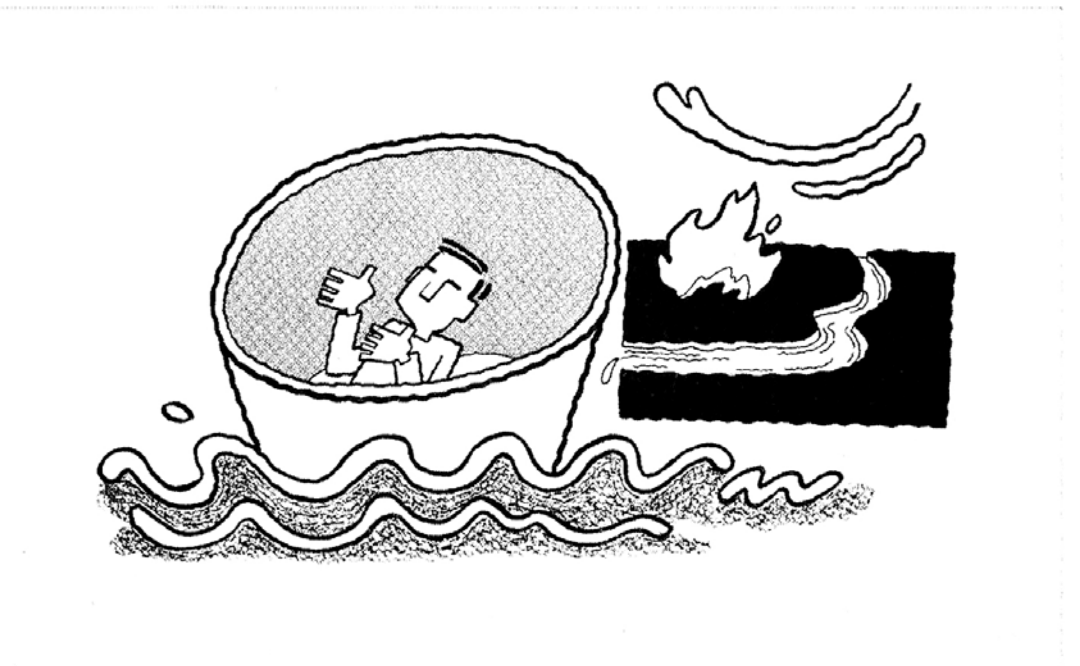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 근본을 못믿으니 반쪽삶 살게 돼"

"욕심·집착하는 마음 버리면 편해집니다"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끝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젖는 도리마저도 공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천차만별의 굴림이 있겠지만 단 한군데서만이 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체가 단 한군데서만이 통할 수 있다는 사실, 상대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한군데서만이 찰나찰나 나투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산 사람의 영혼이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살았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죽었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로 가고, 물로 가고,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그렇게 정돈을 잘해서, 만약에 기계 하나를 이 세상에 다시 내놓을 때 쓸모있는 기계로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재생이죠. 그런데 재생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하면 끝없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화되고 형성되면서 또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과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함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다함없이 한 마음조차 없거든요. 그러나 다함 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이 잘 사는 걸 원하듯이, 또 죽음까지도 대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뭘 갖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함이 없이 할 수 있다면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석금이라고 비유를 하죠. 예를 들어 자식이 죄를 지어 갇혀있을 때 부모가 보석금이라도 주고 빼내오는 것처럼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남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게 됩니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살면서, 먹고 먹히고 또 뺏고 뺏기면서 살아왔던 그 과보들을 제거해주고 빚을 갚음으로써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해서 거둬들일 수 있게끔 해드리는 역할입니다. 그게 또 한번 추수를 해 들이면 그걸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모와 조상과 자식이 한 차원으로 한 염주에 꿰어져 있으니 그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바로 오늘이니까요.

때로 어떤 분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한푼 두푼 모아서 가져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내 가슴은 찡하고 아픕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아파 견딜 수 없을 때,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둘이 아니기에 때론 내 마음 편하고자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떼놓고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도 그 사람은 값어치를 충분히 했거든요. 돈 있는 사람 몇천만원 보다도 그 사람에게는 더 값진 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는 거죠.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파도가 일면 물이 잔잔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파도가 일면 이는 대로 태연하게 '인생이란 이런 거지. 파도가 없으면 죽고 사는 것도 생사윤회도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놓으십시오. 재주가 있는 사람은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넘고 또 넘고 이래도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갑니다. 파도친다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는 세상에서는 파도가 치나 마음엔 파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상세계에 닥쳐오는 것이 잔잔해진단 얘깁니다. 자기 마음에 파도가 일지 않기 때문에 그 파도도 그만 스러져 버리죠.

이 모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 욕심내고 집착하는 마음 하나 내버리면 편할 것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파도가 이는 거죠. 그러나 돈을 벌지 말라든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산다면 그걸 어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을 잘 새겨들으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도 한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한데 떨어지게 되니 진실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내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게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51

산 정상을 날아서 오르고 싶은 사람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잡지 않으면서 내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생활에서나 행동에서나 욕심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게 절제해 나간다면 어떤 원치 않는 일이 닥쳐 나를 괴롭게 한다해도 나의 참뜻은 빛을 보게 된다.

나쁘면 어떻고 나쁘지 않다면 어쩌랴 하는 마음으로 내 발걸음 걸음마다를 다스려 가면서 진실하게 꾸준히 걸어가라. 그런 묵연한 마음이면 인연 지어진 주변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돕게 되고, 오히려 바라지 않았건만 완성이 나를 찾아 온다."

삶은 곧 목표를 향한 도전이라고 한다. 그 목표가 어떤 것이 되었든.

허랑하게 떠돌며 세월을 보내는 낭인(浪人)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목표가 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것을 위해 땀을 흘린다. 바로 생명의 에너지가 약동하는 모습이다. 삶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까닭도 거기에 있다.

목표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사람을 진화하게 하는 요인이다. 목표를 잃은 삶은 무위도식, 죽은 삶이다.

우리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도전한다. 산의 정상에 오르려는 등산가가 날짜를 잡고 장비를 챙기고 코스를 정한 다음 길을 떠나듯이 준비를 하고 기간을 잡고 일에 착수한다. 그리고 대개는 목표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아 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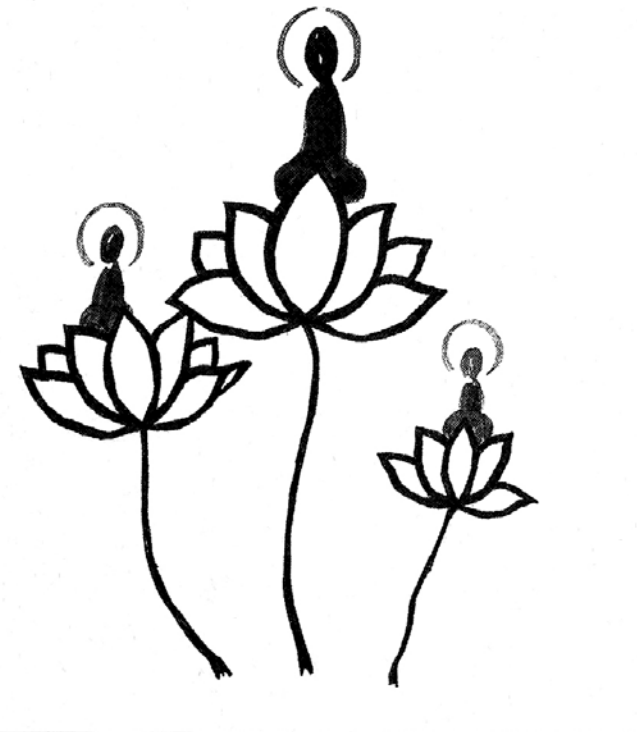
등산가가 정상정복을 바라듯이 목표달성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실패한다.

삶의 긴 여정에서 보면 이 성공과 실패는 자리바꿈을 하며 갈아든다. 애절한 일이지만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니, 극히 드물다.

그는 바로 결과보다도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다.

여기 지리산 정상에 오르려는 등산가가 있다. 그가 장비를 꾸려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내딛는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의 발걸음은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나 능선에 다달아서나 늘 같다.



뛰는 법도 없고 조급해 하지도 않는다. 쉬어야 할 때는 쉬고 걸어야 할 때는 걷는다. 그는 알고 있다. 서두르는 마음이 그를 정상에 올려 놓는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묵연한 행보만이 그를 정상에 다다르게 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앞지르는 사람에 개의치 않는다. 나의 행보와 그의 행보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뒤처지는 사람을 조롱하지도 않는다. 사람마다 자기 체력 이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평화롭다. 마음이 쉬고 있기에 그렇다.

누가 이 등산가를 못난 사람이라 하겠는가. 누가 이 사람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도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자기의 페이스를 지키며 꾸준히 달릴 뿐이다. 서두르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누구나 본래는 늠름하고 밝아서 서두르지 않아도, 결과를 미리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다 자기의 삶을 값지게 엮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이 장보러 간다고 덩달아 따라 나선다. 남들이 달리면 자기도 달려야만 사는 줄 안다. 모두들 전전긍긍하며 산다. 바쁘고 바쁜 것이다. 어서 빨리 목표를 이뤄야 하고 어서 빨리 남 보란듯이 되기를 바란다. 욕심에 쫓기며 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조금만 삐끗해도 근심 걱정에 휩싸인다. 안절부절해 하며 신세 한탄, 팔자운명 탓을 하게 된다. 황소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사실은 아예 잊고 산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를 가는 법이다. 고로 과정은 허송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목표보다 소중하다. 아니, 목표란 본래 없는 것이고 과정이 곧 목표인 것이다. 내가 세웠던 목표는 과정이 있음으로써 달성되어지는 인과의 산물일 뿐이다.

과정을 건너뛴 결과는 없다. 그럴진대 차라리 목표를 지워버려라. 목표를 없애고 지금·여기를 보라. 나는 올바른 등산가인가.

협 찬 : 임태수 · 유현숙